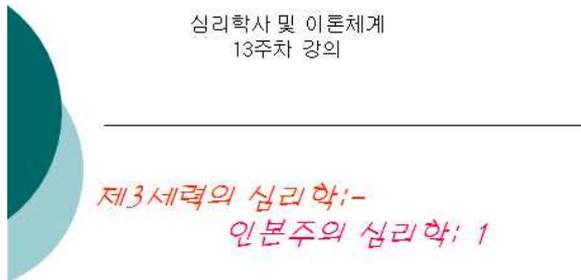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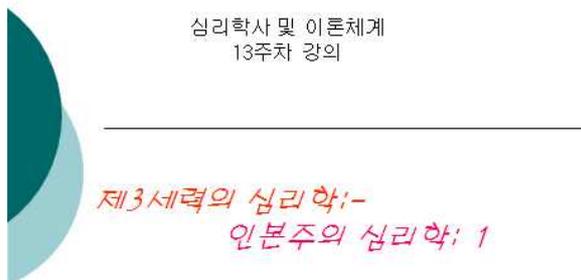
13-1 file no.1



13-1-1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다. 13주차 강의의 주제는 제3 세력의 심리학이라고도 불리는 인본주의 심리학 학파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13주 1회 차는 주로 철학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2회 차에서 주로 심리학 내에서의 움직임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13-1 file no.2



13-1-1

이번 강의의 학습목차를 보면, 심리학의 제3세력이 무엇인가, 철학내에서의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심리학의 기본 생각들, 현상학과 현상학적 심리학, 실존주의적 현상학적 심리학 등이 있다.

13-1 file no.3



## 13주-1회차 학습 목표

---

- 1. 심리학의 제 3세력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파악
- 2. 실존주의 철학과 현상학의 중심 주장은 무엇이며 심리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의 파악

13-1-3

13주 1회 차 학습목표를 보자면, 심리학의 제3 세력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철학, 특히 실존주의와 현상학과 연결시켜서 파악하는 것이다.

13-1 file no.4



## 1. 심리학의 제 3세력: 무엇?

---

- 반발: Not
  - 행동주의심리학
  - 정신분석학
- But
  - 실존주의 심리학
  - 현상학적 심리학
  - 인본주의 심리학

13-1-4

### [ 1. 심리학의 제 3 세력: 무엇인가? ]

심리학 내에서 제3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1910년대 내지 1930년대에 심리학에서 형성된 행동주의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대한 반발로서 시작된 심리학의 움직임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적인 심리학이 아니라, 실존주의적 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 인본주의적 심리학을 주장하는 그런 흐름이다.

13-1 file no.5

### 제3 세력의 강조점

- - 일반화된, 평균화된, 탈개인화된 인간이 아니라 독특한 개인, 자아 강조
- - 개인의 잠재력의 완전한 발달, 개발 강조
- - 기계론, 유물론, 환원주의 반대:
  - 동물과 차별화된 인간
- - 개인의 자유와 책임성 강조
- - 마음이 긍정적, 적극적, 역동적 실체임의 강조
- - 통일된, 통합적인 자아 강조
- - 개인의 의지, 판단, 지각-인식 강조, 개인적 가치, 태도 강조

13-1-5

제3세력의 심리학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나 하면, 먼저 일반화된, 평균화된, 탈개인화된 인간이 아니라, 독특한 개인과 자아를 강조했다. 실험실에서 여러 명의 피험자를 실험을 해서 거기서 평균화된 수치로 얻어진 그런 탈개인화된, 평균화된, 일반화된, 그런 인간을 심리학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개개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개인의 자아를 강조하는 그런 접근을 심리학은 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연히 개인의 잠재력의 완전한 발달과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히 전통적인 실험심리학에서 접근해왔던 기계론이라든지 유물론, 환원주의 등의 입장을 반대하고, 행동주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연구된 동물중심의 심리학을 반대하였다. 인간은 동물과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런 면에서 기계론이 아니고, 또 유물론이나 환원주의 입장이 아닌, 그런 심리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본주의 심리학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실체임을 강조했다. 이는 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부정적 입장에 대한 저항하는 입장이다. 그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은 통일된, 통합적인 자아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분트나 티치너, 행동주의 식의 분석적, 분할적인 그런 접근에 대한 저항하는 입장이다. 또 인본주의 심리학은 개인의 인지 판단 지각 인식을 강조하고, 개인적 가치라든지 개인적 태도를 강조했다.

13-1 file no.6

- 과학은 causality 개념에 근거하는데
- 심리학, 특히 행동주의 심리학은 Aristotle의 4 개의 인과성 중에 물질적 원인(efficient)인과성에 국한한 좁은 개념
  - 아리스토텔레스의 formal cause, final cause를 포괄하는 그런 심리학이어야
- 인간은 기본적으로 계획, 기대, 예상 등을 지니는 목적적 존재 (telic being)
-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고 추구하는 심리학은 과학으로서의 한계를 지님

13-1-6

과학적 전통과 관련 지어 논하자면, 과학은 causality, 즉 인과성 개념에 근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학기 초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4개의 인과성을 강조했다. 그 중에서 물질적 원인(material cause) 실효적인 원인(effective cause)에 국한된 좁은 범위의 원인 개념을 기초로 기존의 심리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이 발전을 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인과성의 개념, 즉 형식적 원인(formal cause)이라든지 종국적(final) 또는 목적적(purposive) 원인(cause)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심리학의 되어야 한다고 제3 세력의 심리학자들은 주장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목적을 지닌 (telic) 존재이기에.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고 추구하는 심리학은, 학문으로서나 과학으로서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13-1 file no.7



- 인간은 다극적(multi-polar) 존재임
-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적용하는 존재임
- 이것이 왜 비과학적이어야 하는지 ?
- 인간이 대립적, 다극적, 목적적으로 (심지어는 자유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임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 물리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러한 다른 측면의 고려 점에서 동일한데 심리학에서만 목적적, 형식적 원인 측면을 제외시키다니.. 하고 비판

13-1-7

계속하자면, 인간은 다극적(multi-polar) 존재이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삭학처럼 어떤 한 측면만 논해서는 곤란하고, 인간의 마음이 여러 상반된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적용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극적인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왜 비과학적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인간이 대립적이고 다극적이고 목적적으로, - 행동주의가 얘기하는 결정론적이 아니라 - 의지적으로 살아가면서 생존하는, 생각하는 그런 존재임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주장했다. 물리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다른 측면의 고려 면에서 동일한데, 왜 심리학에서만 목적적 원인의 측면을 제외시키는가 하고 반문하는 것이다.

13-1 file no.8



- 그러나, 인본주의 심리학은
  - 행동주의나 형태주의처럼
- - 통일된 하나의 이론 체계가 아니라 산만한 관점적 움직임
- - 철학, 문학, 신학 등에 의존
- - 호칭에 약간의 혼동이 있음
- - 20세기 후반부터 약화됨
  - 교재가 아닌 참고서, "H. Kendler (저). 이승복 등 (옮김). 심리학사, 학문사 (12장, 448-492 쪽 참조)

13-1-8

인본주의 심리학은 형태주의 심리학이나 행동주의 심리학처럼 통일된 하나의 이론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만한 관점의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철학, 문학, 신학, 등에 의존해있고, 호칭에도 혼동이 있어서,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해야 되느냐, 제3세력이라고 해야 되느냐, 실존주의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인본주의 심리학의 하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20세기 후반부터 인본주의 심리학이 심리학 이론 체계로서는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13-1 file no.9



## 선구자

- Kierkegaard,
- Heidegger,
- Sartre,
- Binswanger,
- Boss,
- Rollo May,
- Victor Frankl,

13-1-9

## [ 2. 인본주의 심리학의 선구자 ]

다음에 이러한 인본주의 심리학이 나설 수 있었던 선구적 배경에, Kierkegaard, Heidegger, Sartre, Binswanger, Boss, Rollo May, Victor Frankl 등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설명하겠다.

13-1 file no. 10



---

## ○ 실존주의 심리학 (Existential Psychology)

13-1-10

### 2.1. 실존주의 심리학의 선구자

실존주의 심리학은 2회차에서 설명할 예정인데, 다음에 실존주의 사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사람은 (<http://en.wikipedia.org/wiki/Existentialism>; 또는 <http://plato.stanford.edu/entries/existentialism/>)의 웹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

### 2. 실존주의 철학: 제3세력의 철학적 배경 1

Socrates, Plato, Aristotle, Aquinas:

-자신의 운명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 결정, 수용

Dostoyevsky, Nietzsche :

-인간적 문제,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이상 사이의 갈등

<- 합리론, 이성주의:

Kant, Hegel : 인간 지적 활동의 최고 수준:  
이성-과학

-> 실존주의는 합리론에 대해 반발:

13-1-11

제3세력 심리학의 철학적 배경으로서 실존주의 철학을 들 수 있다. 희랍시대에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중세의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강조해서 논했었다.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문학자나 니체 같은 철학자들도, 인간적 문제,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그리고 이상(ideal world)사이의 갈등 이러한 문제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유럽 역사에서 계속 내려온 전통인 합리론적 전통, 즉 이성주의적 전통에 반대하는 것이다. 칸트나 헤겔처럼 인간의 지적활동인 이성을 최고 수준으로 보고 이성 중심의 과학을 전개하여 실증주의적으로 과학을 얘기를 한 그런 합리론적 전통에 대해서 실존주의는 반발하는 관점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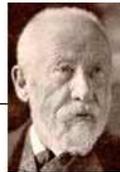


- S. Kierkegaard(1813-1855)
  - - 이성의 격상은 인간 경험에 대한 왜곡
  - - 실존- 삶; 반 이성; 최고수준은 종교적 수준;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 삶의 의미
  - 삶의 3단계: 심적, 영성적 성장
    - 심미적 개인- 합리적, 추상적, detached -> 권태
    - 윤리적 개인- 삶의 의미 추구, 관계적, 자아의식적
    - 종교적 개인- 고통과 믿음, 자아에 대한 참아해
      - - It is quite true what Philosophy says: that Life must be understood backwards. But that makes one forget the other saying: that it must be lived—forwards.
      - - The Diary of Soren Kierkegaard; Kierkegaard, pt. 5, sct. 4, no. 136

13-1-12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 인물의 한 사람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 1813-1855)를 언급하자면,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적 삶을 강조를 했다. 그는 이성 중심의 칸트나 헤겔 철학에 대해서 반대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 삶의 최고수준은 종교적 수준이라고 생각했고,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 삶의 의미 등을 것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합리론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전개했으며,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던지, 관계적 자아의식적 자아에 대한 참 이해 등의 주제들을 강조했다.

13-1 file no.13



- Wilhelm Dilthey(1833-1911):
  - 한 개인의 역사적 존재성 강조
  - 따라서 자연과학이 아닌, 개인역사적 중심의 science of spirit 강조
  - 역사적 의식, 경험적 주관적 삶
  - 실존을 정의하는 의식의 기본 특성
  - 거부:
  -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적 모델
  - 제안:
    - 인문과학(Geisteswissenschaften)적 모델 개발.
    - 자연과학은 인과관계 형성에 의한 설명
    - 인문과학은 부분-전체 관계에 바탕한 이해를 목표로함
    - Both the natural and human sciences originate in the context of "nexus of life" (Lebenszusammenhang), but are differentiated in how they relate to their life-context. Whereas the natural sciences abstract away from it, it becomes the primary object of inquiry in the human sciences.

13-1-12

독일 철학자이며, 역사가이며 심리학자이기도 한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도 실존주의적 입장인데, 딜타이는 한 개인의 역사적 존재성을 강조해서 역사적 의식, 경험적 삶, 주관적 삶을 강조했다. 객관적으로 추상화하고 일반화, 평균화한 개인의 특성이 사라진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개인의 실존 등을 그는 강조했다. 이런 배경에서 딜타이는 심리학이 자연과학적 모델을 따르는 것을 반대하고 인문과학적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13-1 file no.14



o Jean-Paul Sartre: (1905-1980)

- 문학작품에서 의식의 구조와 기능 분석
- 실존임상이론적 접근; 사회심리적 접근
- 실존이 형이상학적, 이성적 본질에 선행
- 실존이 개인 본질 규정
- 신은 인간적 실존으로 환원; 인간의 주관성이 인간 존엄성 부여
  - o - 실존적 자유 -> 책임 -> 불안

13-1-14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는 문학작품에서 의식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실존적인 입장을 강조해서, 실존적인 특성이 이성적 본질에 선행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실존이 개인의 본질을 규정한다. 그는 인간의 주관성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한다고 보았고 실존적 주관적 자유와 책임, 불안 등의 측면을 강조하여 입장을 전개하였다.

13-1 file no.15



o Albert Camus: (1913-1960)

- o 공격성, 죄책감, 사회적 정서, 개인의 선택과 의미
- o 외적 요인에 의한 불합리에 대한 주관적 통제력, 개인목적 의식, 자기실현



13-1-15

한편, 부조리(The Absurd)의 철학자라고도 불리는 까뮈(카뮈, Albert Camus, 1913-1960)는 개인의 경험, 삶과 죽음의 존재론적 부조리,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그 부조리, 비합리성을 알면서도, 그런 면에서 벗어나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인이 선택하고 통제하며,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러나 허무주의적인) 시지프스적 실존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겠다.

13-1 file no.16



o Martin Heidegger (1889-1976)

- 존재의 의미
- 고전적 존재론과 현상학을 통합하여 존재론적 현상학 출발
- being-in-the world: Dasein
- 인간: 존재의 의미 찾기 위해 계속 노력

13-1-15

다음의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존재의 의미를 강조하고 고전적인 존재론과 현상학을 통합해서 존재론적 현상학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다. 세상에 던져져 있음( being-in-the-world), 현실적 존재(Dasein), 이런 것이 중요하지, 추상화되고 일반화되고 평균화된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13-1 file no.17



o Ludwig Binswanger;

- (1881-1966)
- Dasein-analysis: - 전통적 정신분석과는 달리, 과거의 원인성을 축소하고 현재선택 강조
- 후에 현상학적 접근에서 다시 언급



그 다음에 스위스의 의사인 빈스방거(Ludwig Binswanger, 1881-1966)는 현 존재의 분석을 강조했다. 정신의학자(심리의학자, psychiatrist)인 그는 전통적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는 달리, 과거가 현재의 심리현상을 결정한다는 ‘과거의 원인성’을 축소화하고, 현재 자기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현재’를 강조라는 현상학적 접근을 추구하였다. 그는 인간이 사는 실존하는 양식을, Umwelt(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the Mitwelt (타인과 공유의 세상), Eigenwelt (자기세상)의 셋으로 나누고, 이 세 실존양식을 모두 다 설명해야 개인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개인은 자신의 세계관(Weltanschauung)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고 보았다.

13-1 file no.18



- Karl Jaspers: (1883-1969)
  - 심리치료는 실존철학의 한 형태
  - 자아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의 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존재를 이해
    - being-there, being-oneself, being-in-itself
  - 개인적 의미충만세계

13-1-18

다음에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는 실존철학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자아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실존적 의식을 분석을 하고 개인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being-there', 그러니까 현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being-oneself', 자기인 것, 'being-in-itself', 그 현실세계 안에서의 존재성, 이런 개인적 의미가 충만한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심리치료라는 것이 결국은 실존철학의 한 형태라고 그렇게 그는 보았다.

13-1 file no.19



- Martin Buber: (1978-1965)
  - 너와 나:
  - 대화 참가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통일체 출현



그 다음에 독일 철학자 부버(Martin Buber, 1978-1965)는 그의 책, [너와 나]를 통하여, 대화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통일체가 출현된다고 하고, 상담심리에서 'client centered', 그러니까 환자중심인,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내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바탕의 철학을 제공했다.

13-1 file no.20



o Maurice Merleau-Ponty (1908-1961)

- '행동의 구조', '지각의 현상학'
  - 의식과 인간 본성과의 관계
  - 인간의 의식 연구의 기본 방법은 현상학
  - 인지발달 연구
  - 실험심리학을 실존-현상학적으로 접근
  - W. James, 형태주의심리학 등에 기초
  - 의식의 조직 기초요소는 시간경험, 신체경험
- o <http://plato.stanford.edu/entries/merleau-ponty/>

13-1-20

그 다음에 메를로 뽕띠(Maurice Merleau-Ponty, 1908-1961)는 [지각의 현상학] 등의 책을 저술했는데, 의식과 인간본성과의 관계를 논하고, 인간 의식 연구를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입장을 전개했다. 그는 의식에서 몸을 통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21세기의 '체화(Embodied)' 심리학 패러다임 떠오름의 기초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13-1 file no.21

- o *지각의 현상학*(1945)에서 Merleau-Ponty는 데카르트의 cogito 에 대안적 개념인 the body-subject 개념을 발전 시킴
- o 마음-몸의 함께 감
- o 모든 의식은 지각적임
- o J. Locke가 감각 요소를 조합하면 지각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 o 메를로뽕띠는 지각은 활동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공간 'Lebenswelt'에 원형적 열림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봄

13-1-21

[지각의 현상학]이란 책에서, 이전에 내려왔던 체화의 개념, 즉 데카르트의 2원론적 이성의 대안적 개념으로서, 그는 신체와 괴리되지 않는 마음을 지닌 그런 주관적 개인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모든 의식은 지각적인 것이고, 이성이 지각에 바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영국 경험론자들이 감각요소들을 그냥 낱개로 분석하고 조합하면 그것에서 지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반면 메를로뽕띠는 지각은 활동적 차원을 가지고 있고 삶의 공간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개인과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열린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봤던 것이다.

13-1 file no.22

- 
- 
- 이론을 지각과 신체적 행동에 대한 인본적이고 시적인 분석에 기초함
  - 지각의 일차성
  - 행동의 구조 (1942)
  - 감각만 따로 고려할 수 없고 지각이 열쇄이다.
  - 몸과 감각과 기억이 인간의 심적 체험의 바탕이다.
    - => 후에 현상학적 접근에서 다시 언급

13-1-22

그는 지각이 일차적이어서, 감각만 따로 고려할 수 없고, 지각 개념이 열쇄이며, 심리학 이론은 몸에 대한 인본적이고 시적인 분석에 기초한다는 것, 몸과 감각과 기억이 인간의 심적 체험의 바탕이라는 그런 관점을 그는 제시했다.

13-1 file no.23

- 
- 
- <http://www.uchicago.edu/research/jnl-crit-ing/issues/v30/30n3.Hansen.html>
  - **The Time of Affect, or Bearing Witness to Life**  
by Mark Hansen
  - <http://jmchar.people.wm.edu/Kin493/kinst08c.html>

13-1-22

관련하여 다음에 제시되는 웹 자료는 각자 참고해보기 바란다.

<http://www.uchicago.edu/research/jnl-crit-ing/issues/v30/30n3.Hansen.html>

<http://jmchar.people.wm.edu/Kin493/kinst08c.html>

13-1 file no.24

### 3. 실존주의 심리학의 기본 생각들

- 1. 세상에 존재하는 개인
- 2. 개인마다 독특한 내적 삶을 살게 됨: 지각, 평가가 다름. 다른 동물과 차별적으로 유니크함
- 3. 실존심리학의 목표는 인간 존재를, 그 본질을 그 존재 현실의 총체로서 이해하는 데에 있음.
  - total existential reality.
- 4. 실존심리학은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의 의식, 감정, 무드, 개인적 경험에 관심이 있음

13-1-24

## 2.2. 실존주의 심리학의 기본 생각

실존주의 심리학의 특징을 다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첫째로는 이 입장은 ‘세상에 실존하는 개인’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개인마다 독특한 내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각 개인마다 지각과 평가가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앎도 다르다서, 그리고 인간과 동물은 같은 것이 아니고 인간은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실존심리학의 목표는 여러 피험자들을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개인특성을 무시하고 평균화된 그런 추상화된 특성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개개인의 존재현실의 총체로서 이해하는데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한 실존심리학은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의 의식 감정 모두 개인적 경험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13-1 file no.25

- 5. 지속된 물음 주제:
  - 인간적(동물이 아닌) 인간 대 인간의 관계.
  - 인간 가치, 삶의 의미, suffering, 불안, 죽음  
← 실존철학의 영향
- 6. 성격, 심리치료, 카운슬링에 대한 깊은 관심
- 7.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있음, 외적 결정론적 입장 반대, 개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이 있음.

13-1-25

실존심리학의 지속적인 주제는 동물이 아닌 인간 대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개개인의 특성을 중요시하며, 개개인간의 상호작용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동시에 인간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고통, 불안, 죽음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이 거의 무시되었지만). 그 다음에 실존심리학은 성격, 심리치료, 카운슬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실존심리학은 인간은 각자 선택

의 자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적결정론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의 결정된다는 입장을 반대하며, 개인이 자신의 실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존주의는 개인의 존재적 측면, 개인의 자아 등을 강조하는 반면에 자연히 그에 따르는 개인 책임성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13-1 file no.26



핵심 생각

---

- 특히 자신에 대한, 동료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주관적 관계에서 이해하려 함.
- 실존철학에 기초함.
- 실험이 아니고 이해의 방법을 사용, 현상학적 접근이 가장 적절하다고 봄
- 실존주의의 양면성
  - 종교적-무신론적; 염세적-낙관적; 의미추구-불합리성을 각각 인정

13-1-26

다시 한 번 종합을 하자면, [실존주의 심리학]의 핵심생각은 자신과 동료인간의 세상에 대한 주관적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실존철학에 기초하려고 하였고, 실험이 아니고 [이해]의 방법을 사용해서, 현상학적 접근을 사용해서 심리현상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실존주의에는 조금은 양면성이 있다. 종교적 측면이 있는가하면 그와는 반대로 까뉘 같은 무신론적 측면이 있고, 염세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낙관적 측면이 (그러니까 염세적 실존주의자들이 있고, 낙관적 염세주의자들이 있고), 의미추구를 강조하는 실존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삶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그런 실존주의자들도 있다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13-1 file no.27



---

○현상학적 심리학  
(Phenomenological Psychology)

13-1-27

### [ 3. 현상학적 심리학의 선구자 ]

13-1 file no.28



#### 4. 현상학: 제3세력의 철학적 배경2

- Husserl
- Heidegger
- Merleau-Ponty
- Binswanger

13-1-28

제3세력의 철학적 배경1은 실존주의 철학이었고, 철학적 배경2는 현상학이다. 현상학과 실존주의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상학에서 Husserl이라든지 Heidegger, Merleau, Binswanger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얘기된다.

13-1 file no.29



- <Edmund Husserl>:
  - - 철학은 의식에 대한 검토
  - - 심리학: 내부 지향 경험과 외부 지향 경험 사이의 차이를 대꾸어가며 관계 이해.
  - - 지향성: intentionality의 강조
  - - 현상학적 환원
    - 존재를 묘기: 경험의 기본적 전체성, 개인과 의식 대상간의 관계 규정
    - 직접적 경험에서의 문화적 양식의 맥락적 영향 강조
    - 초월적 환원: 특수 경험에서 통합적 초월적 주관적 경험으로

13-1-29

다음에 독일 철학자 훗설(Edmund Gustav Albrecht Husserl, 1859-1938)은 Brentano와 Stumpf의 제자로 현상학의 대가이며 개인의 경험의 주요성을 강조했고, 본질을 아는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의식을 강조했다. 심리학의 주제는 의식인데 의식이라는 것이 분트나 티치너 식으로 실험실에서 날개 조각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관련된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심리학은 내부지향적인 경험과 외부지향의 경험 사이에 차이를 메꿔가면서 관계를 이해하면서 연구 되어야 된다고 봤고 존재를 묻는 것, 즉 경험의 기본적인 전체성과 개인과 의식대상간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의식대상과 개인에서 주관적인 체험으로서의 의식과 이 사이의 관계성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다.

13-1 file no.30



- <Martin Heidegger>: 1889-1976
  - 철학은 존재에 대한 연구
  - 심리학의 본질: 세상 속에서의 한 개인의 존재의 특징적 양식 연구
  - 실존의 기본 특성
    - - 기분, 정서
    - - 이해
    - - 말
- 현상학적 분석
- 몸의 중요성

13-1-30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철학자 칸트를 현상학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존주의적 입장이기도 하다. 하이데거는 심리학의 본질은 세상 속에서의 한 개인의 존재의 특징적 양식을 연구하는 것이고, 실존의 기본특성을, 기분이나, 정서, 이해, 말, 이런 것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실험과학적인 추상화하고 객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 것이다.

13-1 file no.31



- <Merleau-Ponty>: 1908-1961
  - 심리학: 의식과 자연간의 개인적 및 사회적 관계 연구
  - - 외적 물리적 환경이 개인 특성을 결정,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 개인 실존이 환경을 도입, 내면화
  - - 경험주의적 자연과학 방법론은 심리학에 부적합
  - - 심리학의 중심 주제: 사적, 개인적, 내적, 공적 입증과 반복관찰 측정될 수 없는 개인적 경험
  - - 고로 현상학적 기술(description) 방법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

13-1-31

메를로뽕띠를 다시 언급하자면 Husserl과 이어지면서 의식하는 주체와 저 밖에 있는 자연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논하면서, 그것이 이분법적으로 주체와 객체로 나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리되기 힘든 하나의 통합체로서 보는 관점인데, 그런 것이 Husserl에게서도 얘기가 되고 Müller에 의해서도 논의가 된다.

외적, 물리적 환경이 개인특성을 결정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실존이 환경을 도입해서 내면화한다, 그렇게 되면 외적 물리적 환경과 주관적 내면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그런 관점이 제기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외적 자극이 안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을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본 경험주의적 자연과학방법론은 심리학에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 심리학의 중심주제는 객관화된 물질중심의 대상중심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내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경험, 즉 공적으로 입증되거나 반복 관찰되거나 측정될 수 없는 개인적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이 차이 되어서, 분트 식의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그런 방법과 대립되는 접근을 훗설은 제시했던 것이다.

13-1 file no.32



---

○ Binswanger:

- 현상학적 연구를 정신분석적 배경과 통합 시도
- -과거가 아님 현재실존 분석 (daseins-analyse)
- - 심리학에는 자연과학적 환원적 방법이 부적절
- - 치료는 환자가 경험하는 그대로의 환자의 세계를 치료자가 이해하는 것
- - 치료자는 개인적 의미 수준에서만 사람을 만남
- - 현상학적 방법

13-1-32

그 다음에 Binswanger도 현상학적 연구를 정신분석적 배경과 통합해서 시도했는데, 앞서 논한 것처럼, 지금 심리적 상태의 원인이, 과거에 특히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릴 때의 충격적인 성충동적인 그런 경험이나, 무의식적 억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존적으로 던져진 상황에서 실존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현재 측면에서 실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빈스방거는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객관적으로가 아니고 상당히 주관적 현상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환원적 방법이 심리학에 부적절하다고 그는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치료는 환자가 경험하는 그대로의 환자의 세계를 치료자가 이해하는 것이지 치료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을 갖다 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자와 개인 간의 의미 있는 수준에서 같이 만들어어나가는 의미 구성 측면을 그는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다.

13-1 file no.33

## 5. 현상학적 심리학

- - 심리학의 하나의 방법론
- - 제3세력의 입장들의 공통적 기본 가정의 하나
- - 개인의 경험 현상 강조
- - 편견, 사전판단, 사전 관점없이 의식에 나타나는 심리적 경험 현상에 대한 이해,
- - 환원주의 반대, holistic 관점에서의 주관적 체험 현상의 이해

13-1-33

### 현상학적 심리학의 기본 생각

현상학적 심리학의 기본생각의 핵심은 마음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이 심리학의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제3세력의 입장들의 공통적 기본 가정의 하나이었다. 그들은 개인의 경험 현상을 강조하고, 편견이나, 사전판단, 사전 관점이 없이 의식에 나타나는 심리적 경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였다. 그들은 행동주의 심리학 같은 환원주의에 반대하였고, 전체주의적(holistic) 관점에서의 주관적 체험 현상의 이해를 목표로 내세웠다.

13-1 file no.34

## 6. 실존주의적-현상학적 심리학

- 심리치료, 임상심리, 상담심리 장면 관련 철학적, 신학적, 문학적 관점의 영향
- <원리>
  - 1. 개인의 실존적 존재: 개인의 uniqueness
  - 2. 개인은 발달적 산물 - 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일반화된 경험이 아니라 개인의 개체적, 발달역사가 반영된 개인적 경험
  - 3. 개인과 사회의 갈등: 비인간화적 사회의 영향의 극복과 자아실현
  - 4. 방법: 실존적 경험하는 개인을 다룸

13-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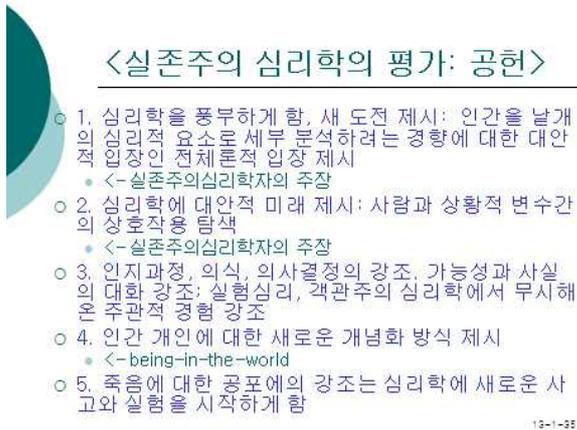
### [ 4. 실존주의적-현상학적 심리학 ]

다음에 실존주의적 현상학적 심리학을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실존주의적 현상학적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실존적 존재와 개인의 독특성(uniqueness)을 인정하고, 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일반화된 경험이 아니라 개인의 개체적 발달 역사가 반영된 개인적 경험이라고 하여 개인은 발달적 산물임을 전제하며, 개인과 사회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비인간화적 사회적 영

향의 극복과, 그를 통한 자아의 실현을 추구하며, 그 방법으로는 실존적 경험을 하는 개인을 다루는 것을 원리로 삼는 입장이다.

심리치료 임상심리 상담심리 장면과 관련해서 철학적 신학적 물리학적 관점을 도입해서 이런 상담심리 임상심리 분야에 적용하는 그런 것이 실존주의적 현상학적 심리학의 시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존주의적 현상학적 심리학은 그냥 철학적 입장을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이지, 다음에 얘기할 인본주의적 심리학처럼 나름대로 독립적인 체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13-1 file no.35



**<실존주의 심리학의 평가: 공헌>**

- 1. 심리학을 풍부하게 함, 새 도전 제시: 인간을 낱개의 심리적 요소로 세부 분석하려는 경향에 대한 대안적 입장인 전체론적 입장 제시
  - <-실존주의심리학자의 주장
- 2. 심리학에 대안적 미래 제시: 사람과 상황적 변수간의 상호작용 탐색
  - <-실존주의심리학자의 주장
- 3. 인지과정, 의식, 의사결정의 강조, 가능성과 사실의 대항 강조: 실험심리, 객관주의 심리학에서 무시해 온 주관적 경험 강조
- 4. 인간 개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 방식 제시
  - <-being-in-the-world
- 5. 죽음에 대한 공포에의 강조는 심리학에 새로운 사고와 실험을 시작하게 함

13-1-22

## [ 5. 실존심리학의 평가 ]

### 5.1. 실존심리학의 평가: 공헌

실존주의 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이 다분히 철학적 입장을 심리현상에 도입해서 실존주의적 현상학적 입장에서 상담심리나 임상심리 또는 성격심리 측면에 적용한 입장인데, 그런 식으로 적용된 실존주의심리학의 평가를 한 번 해보기로 한다.

우선 공헌한 바를 살펴본다면, 첫 째로 실존주의 심리학은 심리학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처럼 동물중심의 아주 지엽적인 행동만을 다루는 그런 심리학,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처럼 (심리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릴 때의 경험의 무의식적 성충동을 중심으로 다루는 그런 편협한 편향된 그런 관점을 넘어서서, 심리학을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인간 개개인을 낱개 심리적 요소로 세부 분석하려는 행동주의적 분트적 심리학 추구 경향에 대한 대안적 입장으로서 인간의 마음 심적 현상을 전체론적 입장에서 보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리학의 대안적 미래를 제시했다. 이전에는 그냥 물리적 자극이 어떤 심리적 경험을 일으키느냐 그런 식으로만 봤는데, 특히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자극반

응 이것으로 봤는데, 사람과 상황적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통합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내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을 심리학이 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지과정 의식 의사결정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 처럼 기계적으로 자극이 제시되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존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자기의 삶 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적응해나가고 의식하는 존재이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히 인지과정, 의사결정과정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실험심리 위주의 객관주의 심리학에서 무시해온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로 인간 개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 방식을 제시했다. 전통적인 심리학에서는 개인이란 것이 없었다. 실험실에서의 평균화된 데이터 포인트에 지나지 않았는데 인간 개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 방식을 실존주의 심리학은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섯 번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의 강조는, 이런 깊은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전통심리학의 새로운 생각과 실험을 시작하게 하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도 영향을 주어서, 죽음의 본능 같은 것을 심리학에서 고려하게 했다고 볼 수 있겠다.

13-1 file no.36



### <실존주의 심리학의 평가: 비판>

- 1. 과학으로서의 객관적 증거 결여
  - 주관론, 이원론, 객관적 증거, 증거 부족
- 2. 중세 St. Augustine의 심리학, 내성법, 주관주의로의 회귀
- 3. 애매한 주장, 언어, 명료한 원리 형성에 실패

13-1-28

## 5.2. 실존심리학의 평가: 비판

실존주의 심리학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면 첫 째로 과학으로서의 객관적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 주관론에 빠져있고 조금은 이원론적이고 객관적증거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기준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중세의 성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학 내성법, 주관주의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주관주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즉 그렇게 되니까, 애매한 주장 및 애매한 언어를 사용하고, 명료한 원리의 형성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다.

13-1 file no.38



## 13주-1회차 학습 정리

- 1. 심리학의 제 3세력은 심리학에서의 행동주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반발로 출발한 움직임
  - 기계론, 유물론, 환원주의 반대; 동물과 차별화된 인간
- 2. 이 움직임은 실존주의 철학, 현상학적 철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출발함
- 3. 이 움직임의 요점은 일반화된, 평균화된, 탈개인화된 인간이 아니라 독특한 개인, 자아를 강조하며, 개인의 잠재력의 완전한 발달, 개발 강조
  - 개인의 자유와 책임성 강조
  - 마음이 긍정적, 적극적, 역동적 실재임의 강조
  - 개인 의지, 판단, 지각-인식 강조, 개인적 가치, 태도 강조

13-1-22

### [6. 13주 1회차 강의 요약 ]

이것으로 13주 1회 차 강의를 끝을 맺겠다. 1회 차 강의에서는 심리학의 제3심리학으로 등장한 인본주의 심리학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실존주의적 심리학 그리고 현상학적 심리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런 것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철학에서 실존주의 철학 현상학적 철학에서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실존주의적 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은 그렇게 널리 퍼져있지는 않았지만 실존주의적 심리학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실존주의 심리학으로 줄여서 이것에 공헌한 바를 설명하고 또 문제점들을 비판했다.

2회 차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철학에서의 실존주의와 현상학, 그 다음에 그것을 심리학에서 도입한 실존주의적 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본주의 심리학이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다루기로 하겠다.

13주 1회 차 강의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한다.